

신성장중심권 개발과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가 후원하고 충남민 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신성장중심권 개발과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관한 워크숍이 지난 3월 17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관련 전문가, 충남도와 시·군 관계관, 충남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주변지역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① 행정도시 건설방향, ②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추진방안, ③ 행정도시 주변지역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철모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은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新도청 건설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① 도청이전의 정책적 의미, ② 도청이전이 충남의 경제 및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③ 도청이전에 따른 향후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연 충남민 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① 지역의 여건과 전망, ②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③ 부문별 계획, ④ 추진체계 및 향후임정 등을 대해 발표하였다.

이 같은 주제발표에 대해 정순오, 한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혜천 복원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정진 공주대 교수, 이상호 한남대 교수, 이원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6명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충청남도는 지난 2월 12일 도청이전 후보지를 확정하였고, 작년 11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